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대만 음식의 정체성

국내 외식업계에 대만 음식 열풍이 뜨겁다. 버블티로 시작된 대만 음식의 인기는 카스텔라, 망고 빙수, 지파이 등을 거쳐 현재는 흑설탕 버블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대체 한국인은 왜 이토록 대만 음식에 열광하는 걸까?

그것은 대만 음식이 가진 독특한 정체성 때문이다. 그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상수와 두 개의 변수를 알아야 된다. 아열대기후와 섬이라는 자연조건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상수다. 아열대기후의 섬, 오늘날 대만 음식과 식재료의 절반은 이 조건 때문에 탄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두 개의 변수는 지배 세력과 인구 구성이다. 원주민의 섬이었던 대만은 17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다섯 번에 걸쳐 지배 세력이 바뀐다. 처음으로 대만을 차지한 세력은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였다. 이어 명나라 출신의 정성공이라는 인물이 동인도회사를 몰아낸다. 하지만 정성공과 그의 후손은 불과 23년 만에 대만을 청나라에 빼앗긴다. 이후 청나라는 212년 동안 대만을 통치한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자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일본이 획득한 첫 번째 식민지였다.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대만은 독립을 맞이한다. 하지만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다시 대만을 접수한다. 이 숨 가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원주민, 네덜란드, 중국, 일본의 다양한 문화가 섞이면서 대체 무엇이 대만의 고유한 식문화인지 구분이 모호해진다.

두 번째 변수는 인구 구성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대만의 인구는 2350만 명. 그 대부분인 97.3%는 중국 대륙에서 넘어온 한족이다. 원주민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2.3%에 불과하다. 나머지 0.4%는 결혼이나 취업을 위해 동남아 등지에서 온 이주민이다. 대만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은 '본성인'과 '외성인' 둘로 나뉜다.

본성인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시절부터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대륙에서 이주한 이들이다. 중국 남부 지방 출신의 농민과 어민이 대부분인 이들은 해안과 평야지대에 고루 분포하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타이완어)를 사용했다. 외성인은 1949년 집단으로 이주한 국민당 정부와 그 지지 세력이다. 관료 출신이 대부분인 이들은 수도인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정착했다. 언젠가는 대륙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목표 아래 언어도 베이징어를 사용했다.

문제는 지배 세력인 외성인(15%)보다 본성인(85%)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당 정부는 1949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40년 가까이 계엄령을 선포한다. 계엄령 기간 동안 국민당 정부는 베이징어를 표준어로 제정하고 대만의 지리와 역사 대신 중국의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며 대만인이라는 자의식을 말살하고 스스로 중국인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했다. 본성인과 외성인은 타이완 독립과 중국 통일이라는 정치적 지향의 차이로 현재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정체성조차 혼란스러운 마당에 음식의 정체성이 확립될 턱이 없었다.

초기에는 정착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푸젠 지역의 음식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내 중국 대륙 곳곳의 특징이 가세했다. 다양한 구성원과 지배 세력의 잦은 교체로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다. 외래 음식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다. 50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지배는 오히려 대만 음식에는 새로운 기회였다. 가츠오부시, 간장, 맛술 등 일본식 조미료가 가세하면서 감칠맛이 더욱 풍부해졌다.

아열대기후는 다른 건 몰라도 식재료 하나만큼은 넉넉하게 제공했다. 특히 과일과 사탕수수는 지천으로 널렸다. 다른 나라에서는 비싸고 귀한 '단맛'이 대만에서는 너무 쉽고 흔한 맛이었다. 이렇게 해서 단맛, 짠맛, 감칠맛의 변주가 만들어 내는 자유분방한 대만 음식의 특징이 만들어졌다. 이걸 대체 누가 싫어할 수 있겠는가.

아열대기후와 섬이라는 상수, 그리고 지배 세력과 인구 구성이라는 변수 사이에서, 대만 음식은 다양성이 곧 정체성인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대만 음식에는 중국 대륙 전체를 품은 것 같은 스케일과 일본 음식이 가진 디테일이 녹아 있다. 일본보다 다양하고 중국보다 맛있는 음식.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조합을 이뤄 낸 게 바로 대만 음식이다. 그러니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한국이 대만 음식에 열광하는 건 어쩌면 예정된 운명 같은 것 아닐까.

〈맛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동결견(凍結肩)

최 동 혁
광주기독병원 정형외과 진료과장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란 말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고 별로 어렵지 않은 뜻이지만,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여간 녹녹지 않다. 특히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상태를 알고(知己) 병의 상태를 알면(知彼) 잘 나을 수 있는 것도 부족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어깨 관절의 통증, 그중에서도 흔하게 겪는 오십견에 대해 지피지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오십견은 동결견(凍結肩)의 다른 표현이다. 알려지기로는 오십견이라는 용어는 일본학자가 시작한 말이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차용되면서 굳어졌다고 한다. 오십견이란 용어는 오십대에만 발생한다는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오십견보다는 '동결견'이라는 용어가 더 적확할 것이다. 동결견은 일차성·이차성으로 나뉘는데, 용어가 어려울 뿐 '이차성'은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어깨를 심하게 다쳤거나 수술했거나, 뇌경색 등으로 견관절을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같이 원인이 될 만한 게 있는 경우이다.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일차성 동결견이라고 한다. 따라서 동결견이 왔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말자.

동결견의 주요 병인은 견관절 주위 구조물의 구축(근육이나 힘줄 수축으로 운동이 제한된 상태), 그 중에서도 관절낭의 염증과 구축이 주 원인이다. 어깨는 몸의 관절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다. 그에 맞게 관절을 둘러싼 주머니 즉 관절낭도 넉넉하다. 그런데 이 관절낭이 오그라든다면 관절의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고 조금 움직이다가 걸릴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동결견의 상태이다.

그렇다면 증상은 뭘까? 앞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답은 나와 있다. 주요 병인인 관절낭의 염증과 구축은 어깨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을 일으킨다. 통증은 어깨 주위 삼각근을 따라 상박으로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며, 저녁에 더 아픈 경향이 있다. 특히 제한된 관절의 움직임을 넘어서는 동작, 예를 들면 찬장에서 물건을 꺼낼 때 팔을 뻗는 자세에서 번쩍하는 통증을 보인다.

의학적 표현으로 수동적·능동적 운동 범위의 제한이 특징적이라고 하는데, 즉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능동적)가 건강한 어깨에 비해 떨어져 있고 타인이 도와줘서 어깨를 움직여도(수동적) 동일하게 움직임의 제한이 있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리를 따라야 한다. 동결견은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같이 오는 병인 만큼 그 손님이 잘 있다가 가시게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풀어 설명하면, 관절낭의 염증과 구축이 '무담시' 온 것처럼, 기다리다 보면 '무담시' 좋아진다는 뜻이고, 특별히 할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런저런 치료가 무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초 관절낭의 구축과 염증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점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인식 격차가 가장 큰 부분은 얼마나 빨리 낫는가 하는 시간의 문제이다. 대개의 경우 2~3년이 걸린다고 한다.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2~3년의 기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런저런 치료가 좋다는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첫째, 자기 어깨가 불편한 어깨라는 걸 받아들이시라. 건강한 다른 어깨 같이 만들겠다고 통증을 참아가면서 운동하지 말고, 안 되는 자세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통증이 없는 정도까지만 쓰시라.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아프지 않게 하면 그만이다. 둘째, 견관절의 통증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므로 일희일비 하지 말 것. 동결견에 동반된 견관절의 통증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의사와 상담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잊지 말 것은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것이다. 셋째,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 어깨가 뭔가 이상하고 걱정되는가?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아 상담하시라.

기 고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최 용 주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위원

사회가 혁명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 한, 보통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통치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제도로서 민주주의로 이행 이후에도 독재 정권 시절에 기득권을 누렸던 지배 계급의 영향력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주권자인 시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였으나, 신군부의 주역인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5공화국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시절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독재 정권이 남겨 놓은 인적, 관행적, 도덕적 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고화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고화 과정이 그 이전 단계에 버금가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특히 독재 정권 시절에 정치 세력화된 군부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인적 청산 과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취약한 기반을 견디지 못하고 권위주의로 퇴행하거나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 80년대 이후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정치적 퇴행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논란은 있으나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제3의 물결 민주화의 대열에 진입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가 단행한 정치 군인 사조직인 하나회 해체와 1995~97년 기간 중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군부를 문민 세력의 통제 하에 두는 역사적 전기가 되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 항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광주 항쟁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이중으로 기여하였다. 첫째는 절차로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6월 항쟁의 정치적, 사회적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 폭력에 저항한 광주시민의 피의 대가로 군부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광주 항쟁은 군부의 정치 불개입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화한 비극적 자양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태들은 보면 광주에서 흘린 피의 대가로 우리가 성취한 민주주의 가치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서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촛불 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들이 우수죽순으로 부활하고 있으며, 군부의 정치 개입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시대착오적 폭력 집단들이 광화문에서 당당하게 시위를 개최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나아가 촛불 항쟁 당시에 기무사령부를 중심으로 계엄령 발동을 계획했다는 소식은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가 허구이거나 아니면 '민·군 동맹'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충격적이다. 사회 일각의 이러한 우경화와 정치적 퇴행에 힘입어서 전두환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보란 듯이 골프장을 드나들고,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을 모아놓고 호화 파티까지 열면서 민주주의 공고화에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정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군부 독재의 유산을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한 탓이다. 정치적 이행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등장한 통치 엘리트들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권력 쟁취에 눈이 멀어서 군부 세력과 쉽게 야합한 결과인 것이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제대로 된 사죄도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사면되었으며, 지난 40년간 미루어진 광주 비극의 진상 규명 작업은 당시에 마음껏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활보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곧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소식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국가 폭력 사태인 5·18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곧 그 국가 폭력을 기획하고 실행한 가해자의 새로운 혐의를 확인한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혐의를 확인했으면, 그에 합당한 사법적 처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온 인적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이게 진상규명위원회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공고화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이자, 궁극의 사명이다.

社 說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상생 위해 나섰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맞춤형 지역 발전 계획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 내 17개 이전 기관들은 엊그제 나주에서 열린 지자체와의 통합 워크숍에서 내년에 추진할 기관별 지역 발전 계획을 내놓고 지자체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전의 경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플랫폼과 사회적 경제 금요 장터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민 교류 활동으로 청소년 전력 사업 체험, 1사 1촌 자매 마을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관련 사업비는 전액 한전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 KDN과 한전 KPS는 농어촌 지역 사회복지 시설 태양광 패널 설치와 PC실 신축·환경 개선 등을 담은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우정사업정보센터는 '블록체인 기반 지급 결제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빛가람 페이'를 도입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농업 관련 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은 농촌 체험 교실과 스마트팜 분야 기업·기관들을 연계한 기술 교육·컨설팅 사업을 제안했다.

이번 계획은 과거와 달리 공공기관들 스스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상생 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참여를 요청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에는 자치단체들이 계획을 수립해 이전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제안하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매년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업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 때문에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지역 발전 계획 제안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제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 협의와 조율을 거쳐 혁신도시가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와 상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5·18 거짓 증언 엄벌로 다스려야

5·18의 핵심 의혹인 헬기 기총소사를 규명하는 재판에서 군 관계자들이 위증으로 일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5·18 전문가 등은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88) 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한 5·18 당시 항공 지휘관들과 헬기 조종사들이 전 씨 측 증인으로 나서 광주 방문을 부인하거나 헬기사격 방식을 속이는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는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전 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지만 이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군문서를 볼 때 명백한 거짓말이다. 1980년 5월 작성된 항공병과 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귀대했다"고 적혀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한결같이 "헬기사격에 대해 모른다"며 위증을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헬기 조종사들은 "헬기사격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점사(6~12발씩 끊어 쏘는 형태의 사격)를 할 경우 총알이 걸려서 안 나간다"고 진술했다. 반면 현직 조종사들은 "6발~12발 형태의 점사 사격이 가능하고, 실제 헬기사격은 대부분 같은 형태로 이뤄진다"고 반박한다. 더구나 이들은 고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헬기사격 방식(점사)을 방증하는 탄흔이 전일빌딩에서 발견됐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들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 듯 위증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조목조목 들려주며 경종을 울리고 있긴 하다. 하지만 위증은 계속되고 있다. 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이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無等鼓

'숲'에서 '쉼'

언제나 찾아가 쉴 수 있는 '숲'이 회사 가까이에 생겼다. 숲속에 들어서니 한여름 풍광이 펼쳐진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하늘이 내다보이고, 연잎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마음이 맑아진다.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햇살을 보고 있으니 눈이 부시다.

한겨울에 이런 풍광을 만날 리 없다. 그러니 내가 체험하는 건 '진짜 숲'이 아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1관에서 만난, '검은 강, 숨은 숲-6 Sense'라는 작품 속의 숲이다. 영상과 미디어아트를 접목해 작업하는 홍순철 작가는 아시아문화원 ACT 기획 팀과 함께 4층 높이 700평 규모의 창조원에 숲을 펼쳐 놓았다. 5m 높이의 검은 고목이 서 있는 공간 위로 열 개의 대형 스크린이 걸렸는데, 다채로운 숲과 늪지 풍경이 스크린으로 쏟아진다. 다른 쪽 바닥에는 9m60cm 규모의 워터스크린을 깔고 사운드 시설을 설치했다. 천정에 떠 있는 스크린에 흐르는 영상이 물 위에 비치기도 하고, 때로 독자적인 영상이 상영되기도 하는데, 참 아름답다.

"우리는 외부와 연결된 '감각의 확장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하지만 결국은 '감각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을 던지는 홍 작가는 새롭게 듣고, 보고, 냄새를 맡고, 피부로 '감각'하는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전하려 한다고 했다.

영상에 흐르는 숲은 나주 죽설헌(竹雪軒)이다. 4년 전 처음 죽설헌을 찾았던 작가가 모든 것을 새롭게 감각하게 해 주었던, '강렬했던 그 체험'을 기억하고, 올여름 내내 죽설헌에서 작업한 촬영물이다. 스크린 중 한 곳에서는 '지금' 죽설헌의 모습도 보인다.

죽설헌은 박태후 작가가 혼자 47년간 가꾼, 1만2000여 평 규모의 개인 숲으로 인위적이지 않은 야생의 느낌이 매력적인 공간이다. '생활명품'의 사진작가 윤광준이 신작 '내가 사랑한 공간들'에서 "죽설헌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러움에서 온다"고 쓴 것처럼 말이다. 전시장에서는 빈백(beanbag)에 눕거나 앉아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숲속 체험은 내년 1월27일까지 가능하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